

祝 辭

2017.2.20. (월) 14:00~16:00
은행회관 14F 세미나실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 종 룡

I.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종룡입니다.

먼저 금융연구원의
시장친화적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금융연구원 신성환 원장님께 감사드리며,

토론을 맡아주실 각계 전문가분들,
그리고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귀빈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다양한 개선 방안이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II.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의 필요성

내외 귀빈 여러분,

최근 세계경제의 저성장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유럽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시중금리가 본격적으로 인상 국면에 진입하게 되면 기업들의 부채상환 부담이 증가하면서 한계기업 수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럴 때 일수록 한계기업의 증가가 대내외 리스크 요인과 결합하여 시장 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구조조정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근 금융시장 환경이 변화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기존 구조조정 방식은 큰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기업들이 시장성 차입을 확대하면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은행이 과거와 같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에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도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 등 산업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무적 구조조정 뿐만 아니라 사업구조 개편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와 관련된 채권은행의 전문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는 채권은행 위주의 구조조정 체계를 보다 상시적이고 시장친화적이며 전문성을 갖춘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오늘 논의될 시장친화적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은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수개월간 민관 합동 TF에서 고심하여 마련한 것인 만큼, 이번 세미나를 통해 새로운 구조조정의 청사진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Ⅲ.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제언

내외 귀빈 여러분,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방식이
새로운 구조조정의 틀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의 주체와 대상인
채권은행, 자본시장, 그리고 기업의
적극적 노력과 변화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동안 제가 구조조정 현장에서
느끼고 고민하였던 사항들을 위주로
시장 참여자 분들에게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먼저, 채권은행은 구조조정 시장의 “조성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랜 경기침체와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충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기업 수: ('10년말) 2,400개사 → ('15년말) 3,278개사

기업구조조정의 본질은 玉石 가리기인 만큼
엄격한 신용위험평가는
구조조정의 시작이자
성공을 위한 필수요건입니다.

우리나라 은행은
새로운 수익원의 부재로 인하여
영업수익이 정체되어 있는 가운데
계속 증가하고 있는 비용 구조로 인해
대손충당금 적립규모가
단기 손익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경영실적 악화를 우려하여
한계기업에 대한 적극적 구조조정을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채권은행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관행은
중장기적으로 은행의 경영성과를 악화시키고
경제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채권은행이
온정적·소극적 신용위험평가 관행에서 벗어나
객관적이고 엄격한 기준에 근거하여
적극적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구조조정 추진 단계에서도
채권은행 차원에서
효과적인 워크아웃 추진이 곤란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장에 매각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구조조정에 묶여 있는
은행의 인적·물적 자원을
보다 생산적인 분야에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2) 다음으로, 자본시장이
새로운 구조조정 “담당자”이자 “투자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10여년간 크게 성장해온 PEF를 중심으로
자본시장의 역량있는 많은 인재들이
구조조정 시장을 주도하여
시장과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선, 좋은 기업을 싼 값에 사서 좀 더 비싸게 파는
M&A 시장의 투자 전략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새로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탈바꿈시켜
부가가치를 높이겠다는
진취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본시장에 구조조정을 맡기는 것이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인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산업에 대한 통찰력과
기업경영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구조조정 역량을 키우는 노력도 적극 기울여 주십시오.

연기금 등 주요 기관 투자자들도
구조조정 시장을 통해
새로운 투자기회를 발굴하려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마지막으로 기업은 구조조정 시장의 “수요자”로서 새로운 구조조정의 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친화적 구조조정의 목표는
기업을 퇴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살리는 것이 원칙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본시장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할 경우
소극적인 채무조정을 넘어
적극적인 신규자금 투입이 이루어짐으로써
기업의 생존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본시장의 구조조정 전문가들을
우호 주주와 경영진으로 확보함으로써
기업의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도 자본시장 주도의 구조조정 시장을 활성화하여
보다 많은 한계기업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IV. 마무리 말씀

내외 귀빈 여러분,

“모든 일은 해내기 전까지는
항상 불가능해 보인다”는
넬슨 만델라의 말처럼,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가 요원해 보이고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구조조정 책임자 및 시장 관계자 여러분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 새로운 구조조정 시장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구조조정 시장이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